

“깨끗한 우리집을
부탁해~”

자가세척 에어컨... 필터 클린봇... 살균 건조기

SAMSUNG 가전 ‘청결대전’ **LG**

가전업체가 각자 방법으로 ‘깨끗함’을 강조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미 계획된 전략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웃지 못할 호재’를 맞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자가 세척 기능을 추가한 신형 에어컨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이지케어’를 통해 전면패널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했다는 특징이 있다. 종전에는 제품을 뜯어야만 세척할 수 있었던 내부 팬도, 소비자가 직접 떼어내 닦아낼 수 있게 했다.

최근 출시한 그랑데 AI 건조기도 콘덴서를 자가 세척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물통을 별도 키트가 아닌 제품 내에 내장해 관리 편의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깔끔한 디자인도 만들어내면서 최단기간 1만대 판매 돌파까지 달성했다.

LG전자도 마찬가지다. LG전자 제품은 삼성전자와는 달리 제품이 스스로 관리하는 기능에 중점을 뒀다. 신형 에어컨 휘센에는 필터 클린봇을 장착하고, 신형 트롬 건조기에도 콘덴서 자동

코로나19에 ‘깨끗한 가전’ 관심 삼성 무풍 에어컨 패널세척 용이 LG ‘트루스팀 건조기’ 살균 우수

세척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등이다. 필터 클린봇은 LG 시그니처 에어컨에 적용됐었던 기술로, 로봇이 주기적으로 필터를 직접 청소해주는 기능을 한다. 사용자가 직접 필터를 떼내지 않고서도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롬 건조기는 지난해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으로 물고임 현상 등이 발생했지만, 제품 결함이 아닌 ‘이불 탈기’ 등 일부 모드에서는 자가 세척을 하지 않게 작동했던 영향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자동 세척 기능을 제품을 가동할 때마다 작동하도록해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신형 건조기는 ‘트루스팀’ 기능으로 다시 한번 시장 공략을 시작했다. 출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 갤러리와 벽걸이 와이드. /삼성전자

부터 판매량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트루 스팀 기능은 섭씨 100도로 물을 끓여 수증기를 스팀으로 분사하는 기술이다. LG전자가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살균 기능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인 소비자들에 특히 관심이 높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트루 스팀 기능이 탑재된 스타일러는 2월달 판매량이 전년보다 30%나 급증하며 출시 9년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식기건조기와 세탁기 등에도 적용됐으며, LG전자는 최근 트루 스팀을 주제로 광고를 만들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 트롬 스타일러
2월 사상최대 판매

LG전자 트롬 스타일러(사진)가 출시 9년째를 맞아 드높은 인기를 확인했다.

LG전자는 2월 스타일러 판매량이 전년비 30% 이상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스타일러 출시 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대용량 제품은 같은 기간 50% 판매량을 늘리며 스팀 가전 성장을 견인했다.

스타일러는 9년여간 연구 끝에 2011년 2월 출시됐다. 글로벌 특허만 220개다.

특히 ‘트루스팀’을 이용한 위생살균코스는 한국의 과학연구원 실험 결과 녹농균과 폐렴간균, 대장균을, 서울대 산업협력단 실험 결과 H3N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받았다. /김재용 기자



미세먼지에 바이러스까지... 공기청정기 관심 ‘부쩍’

- 웰스** 생활환경 맞춤형 필터
- 코웨이** 자가관리형 공청기
- SK매직** 업계 최초 AI 탑재
- 청호나이스** 4단계 필터 소형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이 성큼 다가오면서 집안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원그룹의 웰스는 가족 구성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공기질에 맞춰 필터 선택이 가능한 웰스 공기청정기(AM310)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생활 맞춤 필터’를 적용해 각 개인의 생활 패턴이나 거주 환경에 따라 필터를 선택할 수 있다. 이 필터는 웰스에서 처음 선보였던 계



SK매직 모션 공기청정기.

절 특화 필터에서 기능과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고성능 필터다.

필터는 총 6종으로 미세먼지에 예민한 집에선 초미세먼지 집진필터를, 환

기가 어려운 집에선 실내탈취 강화필터 등 입맛대로 선택하면 된다. 필터는 관리 전문가인 웰스매니저의 방문 관리 서비스를 통해 교체되며, 3개월마다 다른

변의 공기를 집중 청정할 수 있는 최첨단 기능을 갖췄다.

특히 SK매직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해 오염 패턴 분석 및 실외 공기 상태 정보를 수집해 스스로 공기를 정화한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제품 컨트롤뿐 아니라 실내 공기질 등 각종 통계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청호나이스가 출시한 소형 공기청정기 ‘청호 공기청정기 A600S’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갖추고 권장사용면적 33㎡(약 10평)에 적합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1단계 프리필터, 2단계 기능성 3종 필터, 3단계 초미세먼지 집진필터, 4단계 탈취필터를 각각 적용했다. 기능성 3종 필터는 ‘황사방지필터’, ‘탈취강화필터’, ‘집진강화필터’가 상황에 맞게 제공되며, 교체 주기에 맞춰 청호나이스 서비스 전문요원인 플래너가 방문해 필터를 교체해 준다.

/김승호 기자 bada@

삼성, 자가격리·재택근무 임직원에 격려품 전달

대구·경북 거주 가족, 협력사 포함

삼성이 코로나19로 일터로 나오지 못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선물을 전달했다. 협력사 임직원에도 빼놓지 않았다.

삼성은 12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18개 계열사와, 자회사 및 협력사 임직원 중 자가격리중인 2500명 및 산하 1800여명 재택근무자 5000여명에 물품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력사 직원에는 반도체 설비와 스마트폰 부품 제조뿐 아니라 환경미화까지 삼성 사업장 안팎에서 다양한 분야에 속해 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 판정을 받은 임직원과 해외에서 자가격리나 재택근무중인 직원 1000여명, 출장자들의

국내 가족들도 물품 지원 목록에서 빼놓지 않았다. 격려 물품은 손 소독제와 핸드워시 등 감염 예방 용품을 비롯해 홍삼과 비타민 등 개인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 보조식품, 컵밥과 간편식 등 생활 용품으로 구성됐다. 각 계열사 대표 이사 명의로 격려편지도 동봉했다.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은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임직원에 고마움을 표하며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고 전했다. 또 자가격리중인 직원들이 소속된 부서에서도 부서장과 동료들이 응원과 안부 메시지를 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실제 근무하는 임직원뿐 아니라 대구와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의 부

모와 처가, 시부모에도 격려물품과 동일한 위로물품을 제작해 대표이사 편지와 함께 전달했다.

임직원인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편지에는 회사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부모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챙기라는 당부도 담았다. 일부 임직원들은 본인의 손편지를 함께 동봉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어려움을 때릴수록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응원하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활짝 웃으며 마주하자”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증자도 석달 연기... 4월내 완료 힘들 듯

>> 1면 ‘아시아나 기업결합’서 계속

이에 HDC는 지난달 28일 당초 계획에 없던 사모사채 1700억원까지 발행한 상황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 기업결합심사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를 인수하기 위해 해선 보유 노선에 따라 취항하는 각 국가마다 따로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중국·미국·러시아·터키·카자흐스탄 등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는 중이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항공업계가 코로나19의 후폭풍으로 중국 등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결합심사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진행하는 제3차 배정 유상증자도 함께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HDC-미래에셋 컨소시엄과의 신주인수 계약에서 유상증자액 2조1772억원 중 1조4665억원에 대한 유상증자를하기로 결의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 납입일은 내달 7일이다. 그러나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제3차 배정 유상증자도 최대 3개월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27일 열리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대폭 전환될 것으로 보였던 사내이사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며, 임원 부진에 따라 안정성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수지 기자 skin2335@